

〈Venture Digest〉는 벤처기업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립니다.

신제품, 신기술, IR소식 등 알고 싶은 뉴스를 보도자료(기사, 사진)와 함께 협회 홍보팀으로 보내주세요.

협회 홍보팀 박미선 주임(02-6009-4100, 내선 301, Fax. 02-6009-4115, E-mail : pmsun@kova.or.kr)



이노와이어리스, 무선데이터망 시스템 美에 수출

이노와이어리스(대표 정종태)는 CDMA 1x EVDO 방식의 이동전화 무선데이터망 최적화 시스템인 '세단(SEDaN)'을 미국 통신 사업자인 스프린트에 공급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지난 6월 중 1차 27만 5000달러 어치를 공급하는 한편, 연내 70만 달러 이상을 추가 납품, 총 100만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세단은 무선 혹은 유선 등 제한된 영역에서 품질을 측정하는 기존 이동통신 필드 테스트 장비와 달리 이동통신망 유무선 전체 구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해 통신 품질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로 통신 장애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노와이어리스는 SK텔레콤과 이 장비를 지난해 공동 개발한 후 국내 이동통신 3개사에 모두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등 국내 이동통신 필드 테스트 장비 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퓨처시스템, 소기업용 통합보안 제품 무료 체험 이벤트 실시

정보보호 전문업체 퓨처시스템(대표 김광태)은 6월 24일 소기업용 통합보안 제품 '이지락(EzLock)' 출시를 기념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했다.

서울 경기 소재의 50인 이하 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서 퓨처시스템은 100개사를 선정해 이지락을 3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쉽게(Easy) 잠근다(Lock)'는 뜻의 '이지락'은 고급사양의 개별 보안제품을 구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운 소기업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보안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통합보안장비와 온라인 서비스가 연계되어 다양한 보안 기능과 함께 관리의 편리성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장비 설정을 제어하고 펌웨어, 바이러스 패턴 등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원스텍넷, KH바텍·KTFT에 '스나이퍼IPS' 공급

원스텍넷(대표 김대연)은 KH바텍과 KTFT에 침입방지시스템(IPS)인 '스나이퍼IPS'를 공급했다.

원스텍넷은 7월까지 두 업체에 IPS를 설치하고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시스템 보안컨설팅 방법론 전문교육과 취약성 데이터베이스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나이퍼IPS는 해킹이나 웜, 서비스거부(DoS) 공격 등을 막는 제품으로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취약성, 신규 공격패턴 자동 업데이트, 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유지 등의 기능도 있다.

한편 원스텍넷은 기능을 강화한 소프트웨어 방식 IPS 신제품과 주문형반도체(ASIC) 기반의 하드웨어형 IPS 신제품을 하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다우기술-조인스닷컴, CMS 솔루션 개발-마케팅 제휴

다우기술(대표 최한규)과 조인스닷컴(대표 김진기)은 6월 17일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솔루션 공동 기술개발 및 마케팅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CMS시장 공략에 공동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양사는 제휴를 통해 CMS사업 확대에 따른 영업과 기술을 지원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공동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다우기술 최한규 대표는 "콘텐츠 통합과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콘텐츠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CMS가 필수 솔루션으로 자리잡았다"며 "양사간 제휴를 시작으로 일반 기업은 물론 언론사를 중심으로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산네트웍스, 지멘스와 제휴 통신장비 전문회사로 육성계획

다산네트웍스(대표 남민우)는 독일의 대표적 인 전자·정보통신업체인 지멘스 정보통신 부문 안톤 스키타프 대표와 6월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연구개발(R&D) 및 해외수출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조인식에서 지멘스는 다산네트웍스의 연구개발에 1억유로(1500억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산네트웍스를 통신장비를 개발하는 전문회사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이 참석, "국내 기업이 원천기술에서 해외 기업에 비해 격차가 있는데 지멘스의 다산네트웍스 투자는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멘스의 투자는 해외투자 유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휴맥스 '셋톱박스', 영국 최우수제품에 선정

셋톱박스 전문 생산업체인 휴맥스(대표 변대규)의 제품이 영국에서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6월15일 KOTRA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영국의 일반 소비자를 위한 구매 정보 전문 잡지인 위치(Which) 6월호에 영국시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9개 셋톱박스 제품 테스트 결과와 함께 휴맥스의 'F2FoxT' 모델이 베스트 바이 제품으로 선정, 게재되었다고 한다.

휴맥스의 제품은 가격, 모델 사양 및 기능, 사용자 편의성 및 소비전력 등 크게 네 가지로 범주로 평가한 결과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런던무역관 관계자는 "영국내 셋톱박스 시장이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오는 연말까지 약 400만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셋톱박스의 시장여건 호조와 함께 현지에서 호평 받고 있는 국내 셋톱 박스의 선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글과컴퓨터, '아래아한글' 판매 1000만개 기념 한컴오피스 2004 기념

한글과컴퓨터(대표 백종진)는 자사 워드프로세서인 '아래아한글' 판매 수량이 1000만개를 기록했다고 6월 21일 밝혔다. 한글과컴퓨터는 이를 기념해 정립회관, 사회연대은행, 한글문화연대 등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돕는 단체 및 한글 발전에 공헌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컴오피스 2004' 1000개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아래아한글은 1989년 1.0버전 발표를 시작으로 최신 버전인 아래아한글 2004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총 7번의 주요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워드프로세서로 자리매김했다.

한글과컴퓨터 백종진 대표는 "아래아한글은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인프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기록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전 워드프로세서 이외에 외국 제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 시장에서 한컴오피스를 대표 제품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컴퓨터, 원격진료시스템 개발, 안산시에 2건 구축

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는 유신C&C·한별메디텍 등 의료정보전문회사와 함께 혈압·맥박·혈당·심전도 등을 원격지에서 자동 측정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한 뒤 처방전까지 발급하는 원격진료시스템을 개발했다고 6월 21일 밝혔다. 이어 이 시스템을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와 대부도 대부보건진료소 등 각 2곳에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원격진료시스템은 도시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진료시스템의 화면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의사가 현지에 있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체온·혈압·맥박·혈당·심전도와 의료전문 확대경을 통한 피부 및 점막검진 등을 지시하면 각종 데이터가 자동으로 측정돼 실시간으로 의사와 환자의 컴퓨터 화면에 전달된다.



코아로직, 코스닥 등록 승인 코아로직(대표 황기수)은 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로부터 6월 22일 코스닥 등록을 승인받았다. 코아로직은 카메라부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매출 410억원과 순이익 118억원을 올렸다. 오는 8~9월께 공모를 거쳐 9~10월 사이에 등록될 예정이다.

SINJISOFT

신지소프트,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신지소프트(대표 최충업)는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고 6월 14일 밝혔다. 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10월 중 공모를 거쳐 11월 중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게 된다. 신지소프트는 무선인터넷 다운로드 솔루션 업체로 지난해 87억9200만원의 매출액과 49억299만원의 경상이익, 43억68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파이컴, 기업설명회 개최 반도체·LCD 검사장비 업체인 파이컴(대표 이역기)은 6월 21일 여의도 코스닥증권발명당에서 기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작년보다 142% 증가한 582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이컴 측은 지난 1·4분기에 매출 152억원, 당기순이익 38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기록함에 따라 올해 매출 예상을 크게 상향조정했으며, 또한 작년 187억원의 손실을 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9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Best Your Business Partner



이노티지, 무선결제 본인인증 솔루션 비자 국제인증 획득 e금융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기업인 이노티지(대표 정정태·김중락)는 자체 개발한 무선 결제 본인인증 솔루션(ACS:Access Control Server)이 비자 국제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무선 결제 본인인증 솔루션은 전자상거래시 개인정보유출 방지, 신용카드 소유자 인증 등을 구현하기 위해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설치되는 모듈이다. 이노티지는 지난해 유선 ACS 및 유무선 MPI(Merchant Plug In) 비자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무선 ACS까지 획득함으로써 국내 전자지불업계 최초로 유·무선 통합 비자 인증을 확보하게 됐다.